

발행처:경기도교육청
발행부서:미래교육정책과
집필:꿈진집필위원단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제 153 호
(2019.06.20.)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의미

2019년 6월 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은 3,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는 또 다른 긴장감을 갖고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차 지필고사 이후, 입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나 학교의 행사 등으로 긴장감이 풀어지기 쉽고, 공부에 집중하기 힘든 시기에 치르게 된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1. 자기 성적의 전국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 등을 예측
3. 수시 및 정시의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

이미 본 3,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두 시험이 현재 고3 재학생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살피는 중요한 역할이었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조건에서 치르는 첫 시험으로서 전국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수험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인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그해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교해 보면, 국어는 1등급이 91점에서 84점까지 내려갔으며, 수학 가형은 85점에서 92점으로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의평가의 난이도를 가지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렵거나 쉬울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이번 6월 모의평가를 통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학습의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학업 능력을 진단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문제 유형과 수준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만큼, 우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학습 성과를 점검하고 집중력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어려웠나요? 이렇게 대비해봅시다.

1. 국어 영역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보다는 쉬운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며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였다고 이야기하는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신 유형보다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형식의 문제들이 많고 EBS 반영 비율도 높아서 차근차근 문제를 푼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법 문제에서 각 단원 간의 내용을 엮어서 출제된 것으로 보아 보편적인 국어 영역이 아니라 국어 과목으로서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독서는 경제 영역의 지문이 수능 특강과 연계되어 나왔으며, 과학 영역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게 출제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이 수험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국어 영역은 정답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제의 의도를 생각하며 글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독서의 지문은 분량이 긴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므로 빨리 읽으려고만 하기 보다는 글의 전체 구조를 생각하며 각 단락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추론해보며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나 과학 등 고난도의 지문을 많이 독해해 봄으로써 어떤 지문이 나와도 자신감을 갖고 차분히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연습이 바탕이 되어야 속도를 내어도 글을 정확하게 읽고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2. 수학 영역

가형과 나형 모두 최고난도 문항은 작년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중간난도의 문항들이 많아 수험생들이 실제로는 어렵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형의 출제 경향은 최고난도 문항의 난도를 조금 낮추면서 중간난도의 문항들을 조금 어렵게 출제하여 전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하여 난이도를 조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볼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의 문항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출제되는 모든 단원의 내용을 개념부터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아는 학습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문항을 푸는 것보다 적은 문항을 풀더라도 정성껏 확실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을 맞힌 문제도 다른 문제 풀이 방식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영어 영역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은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유형과 대체로 비슷하였다고 느낀 수험생이 많았습니다.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가 다소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는 기존의 3점 배점에서 2점으로, 문법 문제가 2점에서 3점 배점으로 조정된 것은 작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배점이 같아진 점입니다. 빈칸을 추론하는 문항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의 정보를 우리말로 해석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EBS 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이해하고 풀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듣기 문제는 EBS 연계 교재를 잘 활용하여 꾸준히 공부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자세히 들으려고 노력해도 잘 들리지 않는 문제의 경우에는 지문을 보면서 들어보기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어휘도 꼭 정리해 두어야겠지요. 듣기 문제를 자주 틀리는 수험생들은 듣기 평가 문제와 뒤의 독해 지문을 같이 풀려고 하는 급한 마음보다는 각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어휘는 언어를 공부하는 데 필수입니다. 단순히 EBS 연계 교재의 단어를 마구 암기하는 것보다는 독해에서 쓰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하며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지문의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정답의 단서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지문에 있습니다.**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질문 있어요!

[질문1] 졸업생들도 시험을 보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 고3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졸업생들이 참 부담스러운 존재죠?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접수 인원은 재학생이 462,085명, 졸업생이 78,098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재학생이 85.5%, 졸업생이 14.5%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졸업생이 얼마나 오느냐가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받을 자신의 성적을 바탕으로 자신이 수능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학습의 내용과 방향을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질문2] 그렇다면, 학습 계획과 방향은 어떻게 세워야 하죠?

-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성적표는 6월 25일(화)에 배부됩니다. 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나의 학습 방법을 검토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게 될 텐데요.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과목을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추상적 목표가 아니라 시간을 더 자세히 나누어 학습 시간이 아닌 내용과 분량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탐구 영역의 경우 언제든지 노력만 조금 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 늦기 전에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해요. 탐구 과목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학습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지원 가능 대학의 윤곽을 잡고, 그 대학들의 수능 반영 방법을 고려하여 영역별 학습량의 변화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시 지원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정식 지원 가능 대학의 범위를 통해 수시 지원 가능 대학들을 판단해 보고 그 대학들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유무와 충족 여부를 고민하여 충족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선택하여 학습 비중을 집중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지요?

